

'변화 · 혁신' 으로 골판지 기업 도약

전주페이퍼, 새 광고 캠페인
총 3가지 테마로 구성돼

최근 성공적인 운영 혁신 활동인 'TOP21(Total Operational Performance 2021)' 프로젝트를 통해 골판지 원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진행한 전주페이퍼(대표이사 사장 장만천)가 변화와 혁신을 컨셉으로 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한다.

전주페이퍼는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지난 55년간 국내 신문, 출판 용지의 절반 가량을 생산하며 얻게 된 대표 제지기업의 이미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골판지 원지 대표기업으로 입지를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춘다.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온 전주페이퍼는 지난 2018년 첫 골판지 생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TOP21' 프로젝트를 통해 골판지 원지 생산 역량 강화와 프로세스 혁신을 진행했으며, 올해도 효율화 작업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과 생산성을 강화해 골판지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총 3개의 테마로 구성된 이번 광고 캠페인은 그간의 변화와 혁신의 주역인 전주페이퍼 임직원이 실제 광고 모델로 참여해 더욱 의미가 있는 광고 캠페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페이퍼의 새로운 자연 광고 포스터.

전주페이퍼 관계자는 "이번 광고 캠페인을 통해 골판지를 포함한 종합 제지회사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주페이퍼의 새로운 기업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페이퍼는 골판지 원지, 신문 및 출판용지 등의 사업으로 종이 부문의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꾸준한 재생용지 개발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지난 21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과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 삶 밀착 지역뉴딜로 균형발전 이뤄야”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장,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과 간담회서 강조

“한국판 뉴딜이 계속 진화해나갈 중심에 지역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뉴딜의 거점이며 이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산업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LX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

관장 1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대학들이 상호 협력하고 적극 참여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이 살아나 한국판 뉴딜을 더욱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LX한국국토정보공

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10곳 공공기관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지역균형뉴딜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다.

앞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전라북도과 함께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은 지난 21일 여수 소노호텔에서 열린 2020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개인부분에서 전북 농·축협 임직원 17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도내 농·축협 임직원 17명

NH농협생보 연도대상 개인부분 수상 '쾌거'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지난 21일 여수 소노호텔에서 열린 2020 NH농협생명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개인부분에서 전북 농·축협 임직원 17명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종별 수상자는 △은상 임재석 지점장(전주농협), 정승만 과장(전주농협), △동상 최순조 과장(순정축협), 최혜경 팀장(전주농협) △우수상 오영숙 계장(전주김제완주축협), 남미란 과장보(흥덕농협), 김혜원 과장(전주농협), 전진미 지점장(신대농협), 윤주연 계장보(운봉농협), 강영숙 팀장(철보농협) △신인상 강수인 상무(흥덕농협), 김은숙 계장(태안농협) △농사리상 최진영 과장(장계농협) △셀린

저상 정미교 팀장(정읍농협), 임보라 과장보(부안농협) △영정상 백용기 상무(장수농협), 김성경 과장보(남원농협) 등으로 17명이다.

수상자 중 최혜경 팀장(전주농협)은 연도대상 5연패를 달성했고, 최진영 과장(장계농협), 김혜원 과장(전주농협), 정승만 과장(전주농협), 정미교 팀장(정읍농협)은 4회 이상 연도대상 수상이라는 기쁨을 누렸다.

이숙 총국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합원의 실익을 위해 노력한 연도대상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 시상식에는 전북에서 더 많은 수상자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금 바로 농촌마을 가꾸기 참여하세요'

전북농협, 내달 16일까지 경진대회 공모 접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확산하고 농촌마을 주도의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4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 2점을 포함한 28개 마을, 3억원 규모로 시상될 예정이다.

공모대상은 사계절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는 농촌마을로서,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com)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로드

관할 지역 농·축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5일까지이며, 10월 농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수상자를 게재하고 11월 농협중앙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경관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부화... 농가들 '비상'

옥수수 등 벼과작물에 큰 피해 우려... 사전준비 해야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서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비래해충(飛來害蟲)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대웅)은 비래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의 유충(애벌레)이 옥수수 등 벼과(科)작물을 갉아먹는 피해가 5월 4주차(5월 24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농가의 사전준비를 지난 21일 당부했다.

20일 현재 열대거세미나방은 전북 고창 보성 등 8개 시·군에서 38마리의 성충이 포획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48%나 증가한 것으로 발생 지역은 2배 늘어난 것이다.

열대거세미나방은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총 4회에 걸쳐 우리나라에 날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5월 7~8일경(3차), 5월 16~17일경(4차)에 제주, 경남, 전남 등 남부 해안가 지방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진흥청은 가장 많은 개체가

채집된 5월 7~8일경(3차)을 기준으로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부화에 따른 작물 피해발생 시기를 예측한 결과 제주지역은 5월 22일부터, 내륙지역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5월 24~29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작물 재배지에서 유충과 작물 피해를 일찍 발견하는 것은 방제효과와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제주, 경남, 전남 등 비래 추정지역에서는 옥수수 등 벼과(科)작물 재배지 예찰과 방제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고창·보성 등 8개 시·군에서 38마리의 성충이 포획(아주심기)한 벼과(科)작물 재배지는 반드시 정밀예찰하고 발견 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은 곤충포획장치(페로몬트랩)를 통한 주기적 비래해충 발생조사를 실시하며 기존 열대거세미나방 성충 유입 시·군을 중심으로 작물 피해예상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예찰하고 있다. 5월 초부터 제주 서·남해안의 옥수수 재배지

를 대상으로 예찰과 현장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지방 농촌진흥기관 예찰 담당자들로 구성된 관계망(네트워크)을 통해 빠른 기술지원과 발생정보 공유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올해는 열대거세미나방 성충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빠르고 발생량도 많아 유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2~3령 유충의 방제효과가 큰 만큼 벼과(科)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께서는 주기적으로 작물 재배지를 살피고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나 대표전화(1833-8872) 신고와 함께 빠른 방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열대거세미나방 유충 방제를 위한 작물별 등록약제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saro.go.kr) 또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i.ak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기능장 합격자 9명 추가 배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이 2021년 상반기 국가기술자격시험 결과 9명의 기능장을 추가 배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최근 합격자 발표 결과 이 회사는 전주시설동력팀 소흥수 씨가 가스 부문 기능장에 합격한 것을 비롯해 총 9명 5개 부문에서 기능장에 합격했다.

이번 합격에 힘입어 전주시설동력팀 소흥수 씨와 상용엔진품질관리부 문병호 씨, 상용엔진2부 김상권 씨는 기존에 취득한 3개 부문 기능장 외에 각각 가스과 배관 위험물 부문 기능장 타이틀을 보태면서 4관왕에 올랐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기능장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주력 생산품목인 중대형 상용차 품질 등 제품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기능장 수가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주력 생산품목인 중대형 상용차 품질 등 제품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주=이중복 기자

“이웃사랑 실천하는 청년으로 성장하길”

인후신협 1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인후신협 회장(이사장 김지원)은 지난 20일 인후신협(이사장 김지원) 본점에서 인후신협 1기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학업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학생들이다.

지난 2010년부터 전주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전달해 온 인후신협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꿈을 위해 정진하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 매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6년 동안 학생 1인당 총 1,100만원(고등과정 200만원, 대학과정 입학학자금)을 포함한 900만원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인후신협 김지원 이사장은 “교육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장



학사업의 포문을 열었다”며 “선발된 학생들 모두가 꿈을 이루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실천하는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장학사업을 추진한 인후신협 송삼섭 전무는 “끊임없는 혁신을 향한 열정으로 신협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넘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다”며 “비전의 한 일환으로 시작한 장학사업은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후신협(이사장 김지원)은 4월 말 현재 조합자산 3,900억원에 인후동 본점 덕진동 허가지점, 혁신도시 혁신지점을 운영중이며, 오는 11월 송천동 동부대로지점 지점 개점을 앞두고 있다. /김윤상 기자

aT, 내달까지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농식품 빅데이터에 대한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공모주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이더’ 기획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용 홈페이지(k-foodontest.kr)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6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팀(부문별 10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팀에는 서비스모델 개발과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후 8월 5일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자 9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의 상훈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특히 분야별 상위 1팀에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상위 수상자 3팀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 클라우드 펀딩 등 사업화 과정 지원 혜택도 받게 된다.

aT 김춘진 사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급속히 빨라지면서, 농식품 분야에도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우리 농식품 산업이 데이터 기반의 미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예비창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본 대회의 참가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k-foodontes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29일 JB문화공간서

‘콤파젠츠’ 루프탑 콘서트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후원하는 JB문화공간에서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흥재실과 인디밴드 ‘콤파젠츠’의 루프탑 콘서트 무대가 마련된다.

밴드 ‘콤파젠츠’는 레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적 시도를 하고 있는 흥재 인디밴드의 실력과 밴드도 아름다운 선율의 레계 넘버 ‘Alone in the wind’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데뷔 후 다양한 무대를 만들어 온 이들은 밀레니얼들을 위한 뉴스레터 기업 ‘뉴’의 로고송을 부르기도 했으며, 지난해 네이버 온스케이지에 한국 댄스(dub) 밴드를 대표해 출연하기도 했다. 이후 현재까지 ‘Why’, ‘Cat Song’, ‘팔자’ 등 꾸준한 실용 발매와 공연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공연 관람은 JB문화공간 홈페이지(www.jbartscente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며 “문화공간에서는 모든 공연 및 행사 전, 마스크 착용 및 체온 측정, 손소독 등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8-7797)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